

실업뉴스



The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News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제767호

2019

2018년 한 해 동안 흘린 땀방울이 2019년에는 더 큰 결실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돋보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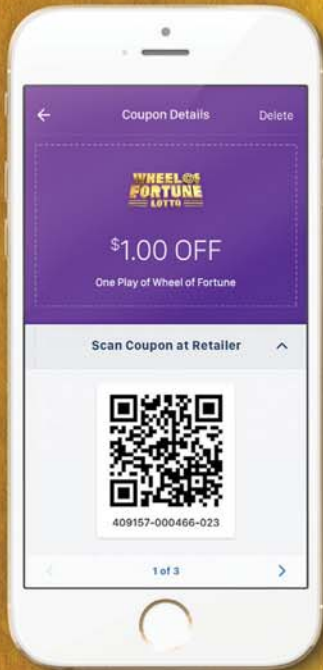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검색창에
OKBA를
입력하세요.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OLG 복권 앱 언제 어디서나 즐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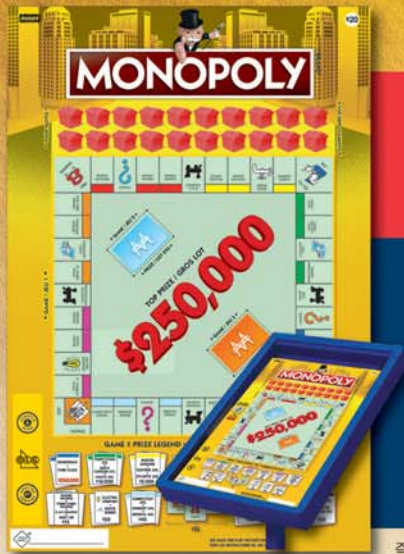


고객들은 이제 쿠폰 및 콘테스트 기능까지 생긴
OLG 복권 앱을 더욱더 즐겨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법:

1. OLG 복권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2. 본인의 Winner's Edge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새로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3. 개인화된 쿠폰과 두 번째 기회 콘테스트*를 받으십시오

*콘테스트는 2019년 2월에 시작됩니다.



2019년 1월 7일 **\$20 MONOPOLY** 복권 출시

1등 상금 \$250,000

당첨금 지급률 70%

당첨 확률 3.20대 1

즉석 복권 진열대(Instant Infinity Merchandiser)에만 진열하십시오

당첨확인 후 복권 반환

모든 복권은 당첨확인 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복권과 영수증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복권 당첨금이 지급 한도인 \$999.90를 초과하여 소매업자가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은 복권을 돌려받아야 당첨금을 청구하고 당첨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LG는 소매업자들이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매업자 정책매뉴얼 (Retailer Policy Manual - RPM) 제5.1절 OLG 공인 상품의 당첨확인(Validation of OLG Authorized Products)을 참고하십시오.

고객에게 복권 및 영수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RPM 제8.9절에 명시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Play Smart
Knowledge you can bet on.



OLG Ontario's
Lottery & Gaming

■ Publisher

Jae Gyun Shin (신재균)
Tel (416)789-7891(ext.70)
e-mail.sjg0061@gmail.com

■ General Manager

Sunny Chon (전무 전승원)
Tel (416)789-7891(ext.30)
e-mail.sunnyc@okba.net
▶ 대정부활동 및 실무 총괄

■ Business Manager

Brian Lee (이주녕)
Tel (416)789-7891(ext.21)
e-mail.brianjn1108@okba.net
▶ 사업개발
▶ 공급업체 상담
▶ 행사관련 사항
▶ 회원등록

■ Accounting

Sei Hwan Kim (김세환)
Tel (416)789-7891(ext.24)
e-mail.accounting@okba.net
▶ 리베이트
▶ 대외 A/P, A/R
▶ 실험사무 관리

■ Reporter

Kwangil Kim (실장 김광일)
Tel (416)789-7891(ext.23)
e-mail.tedkim@okba.net
▶ 실험뉴스 취재
▶ 기사제보
▶ 홍보사항

■ Design

Mi Young Hyun (현미영)
Tel (416)789-7891(ext.22)
e-mail.mimihyun@okba.net
▶ 광고 / 편집 디자인
▶ 인쇄 및 홈페이지 관련
▶ 광고문의

■ Website

www.okba.net

Publication Mail Agreement No:41140510

Return Undeliverable Canadian Address to: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Tel.(416)789-7891 Fax.(416)789-7834



1월 4일 시무식에서 협회와 조합의 겸임 전무로 임명장을 받은 전승원 신임 전무가 신영하 조합운영이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C O N T E N T S

04 | 회장 新年辭

05 | 2019 협회 / 조합 합동 시무식

06~07 | 주정부 주류판매 온라인 여론조사

08~09 | 2018 大尾, 집권여당과의 밀월 확인하며...

10 | 조성준 장관, 집권여당 의원 본부협회 방문 화보

11 | 데빗 머신 관련 공지사항

12~15, 17 | 2019 캐나다 편의점 주요 이슈 전망
온타리오 봉사상 신청공고

16~17 | 스토리가 있는 지역 특산물 호감 증대

18~19 | 교양 상식 : 돼지에 얽힌 고사성어

20 | 독자의 글 : 휴로니아 지구협회 최승영 회원

21 | OKBA 지구협회장 전화번호
2018년 협회 주요 사업

22 | Directory

新年 辭 新年 辭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2019년은 돼지의 해이며 그것도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역술인의 풀이를 보니 기해년은 들판에 물이 넘친 형상이라 풍요롭다 했는데 회원 여러분들의 업소와 협회 그리고 조합이 두루 풍요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소원해봅니다.

본부협회 회장에 취임하고 첫 일년을 조합 바로세우기에 전력투구했습니다. 협회 일도 산적한 과제가 많았지만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에 있는 조합의 기강이 온전하지 못해 한시바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회 회장이 조합에 간섭이 많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협회 파견 이사의 자격으로 그리고 조합 최대 주주인 협회 수장으로서 회원과 조합원의 사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개입했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는 조합 운영이사장과의 충분한 의논과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그간 성과가 바로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조합의 민낯이었으며 이는 동포 언론이나 실험 뉴스 등을 통해 두루 회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전해진 바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주대하기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조합의 실상을 접했고 과거를 최소한이나마 정리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조합 세우기에 매진할 수 있는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한해 조합이 거듭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울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편, 협회는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 자세로 오랜 세월을 봉사해왔던 차동훈 전무가 은퇴를 했으며 그 후임으로 회원이자 지구협회장으로 과거에 이미 충분한 협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승원 사업실장이 후임 전무를 맡아 실무 총책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전 전무와 이하 직원들이 일치 단결해 회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회장 신재균

편의점 산업의 환경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인편의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편의점의 전반적인 혁신이 눈부실 지경입니다. 편의점의 푸드서비스가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차이를 겨룰 수준에 와 있고 윌스톱 쇼핑의 인기 채널로 소비자들로부터 날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에 기반한 SNS의 발달은 편의점 온라인 무료 광고와 GPS 위치정보에 세일 정보까지 풍부한 내용으로 젊은 세대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편의점은 영세성의 핸디캡에 더해 정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동종업계 체인사들 그리고 경쟁채널 관계의 타 소매유통업체들에게 크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협회는 아직도 1천여 회원이라는 덩치로 업계의 위상과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변화의 속도에 따른 변신을 하지 않으면 눈감짝할 사이에 도태될 것입니다.

그나마 외적 환경의 변화는 나름 유리한 형국을 조성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 초까지 편의점 살리기 SOS 캠페인을 열심히 벌였고 온주 제 1야당이었던 보수당과의 유대를 강화함에 지혜와 힘을 모았습니다. 그 정성이 통함이었는지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같은 당 소속으로 한인사회 배경의 정치인을 두명 배출했습니다. 한분은 장관으로 입각까지 했습니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자영업 친화적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치는 새 정권의 정치 철학과 한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 이미 편의점에 유리한 영업 여건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협회와 조합은 우리만의 이해관계로 뭉친 조직으로 머물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인사회로부터 사랑받고 한인 커뮤니티의 공기(公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회장으로서 저는 올해 대정부 로비에 있어서 주어진 유리한 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한인사회를 포함해 온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협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내 평화와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며 황금돼지의 해를 풍요롭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심 넘치고 한인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 만들자”

2019 협회 / 조합 합동 시무식



본부협회 2019년 시무식(始務式)이 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지난 1월 4일(금) 조합 부속 회의실에서 거행됐다. 두 조직의 임.직원, 이사, 자문위원,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에서는 신한은행장과 외환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약 40 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전 11시 전후해서 당도하기 시작한 참석자들은 오랜만의 만남을 반가워하며 준비한 떡과 다과 그리고 와인을 들며 쌓인 이야기들을 나눴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다.

태극기와 캐나다 국가가 단상 좌우에 배열된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양국의 국가를 이어 불렀다. 이후 신년사들이 이어졌는데 본부 협회 신재균 회장이 자부심 넘치는 조직을 만들자는 덕담에 이어 협회와 조합의 향후 1년간의 운영 기조에 대해 다소 무거운 각오를 밝히자 장내는 긴장감마저 들었다. 신 회장은 2018년 한해의 기억할 의미로 “회원 모두의 조합 주주화”를 들었다. 조합 정관을 개정해 과거 1불 주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은 빼앗긴 주주의 권리를 회복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조합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제고할 획기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온주 정치권의 변화에 협회가 미약하나마 힘을 보탠 것에 자긍심을 느끼며 편의점 산업에 호의적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를 잘 살려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자고 호소했다. 봉사 정신의 공평무사함과 청렴함도 재차 언급됐다.

협회 신임 전무가 조합 전무를 겸임해 두 조직의 일체감 조성과 아울러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며 양쪽 직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도 당부했다.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협회의 자산이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여해야 하는 공공재(公共財)임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이두승 이사장이 신년사를 했다. 협회와 조합의 가교 역할에 충실한 이사장이 되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신영하 조합 운영이사

장이 신년사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을 대표해 15대와 16대 본부 협회 회장을 역임한 (1999-2002)주창군 전 회장이 신년사를 했다. 주 회장은 자신이 재임 시절에 매입한 현 협동조합 웨스트몰 건물의 협회 매입에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두 수장들이 빈틈없이 계약을 잘 마무리하고 상호 협조하에 함께 번영하는 조직으로 키워줄 것을 믿는다고 격려했다.



▲ 주창군 자문위원(왼쪽 사진)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재균 회장 과 신영하 운영이사장으로부터 겸임 전무 임명장을 받고 소감을 말하고 있는 신임 전승원 전무.

행사가 끝나기 직전 협회 전승원 사업실장의 협회 전무와 조합 전무 겸임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공식적으로 수여식 행사를 함으로써 조합 직원에게도 전무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일상분란한 업무의 위계 체계를 잡고자 함이었다. 이에 앞서 정년 퇴임하는 차동훈 전무의 퇴임을 다시한번 소개하며 인사말을 가질 기회를 마련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 참석자들은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가졌으며 미 시사가 소재 한식당에서 떡만두국으로 점심을 들며 못다한 정담을 이어갔다. ■

주정부 주류판매 온라인 여론조사

ontario.ca/alcoholconsultations 로 몰려가자!

“몇분 투자하면 주류 판매 눈앞에 성큼 “



Tell us about yourself

1. Are you a... *

- Consumer
- Retailer
- Bar or restaurant owner or employee

* Select all that apply. You may select more than one.

온타리오가 정권이 바뀌더니 수십년 묵청높이 요구해왔던 편의점 비어/와인 판매가 실현되려는 분위기가 역력해지고 있다. 새로 들어선 보수당 정권은 자유당 정권 시절 제 1야당의 입장에서 현행 주류판매 독점 시스템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질타하며 민영으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리고 더그포드 수상은 당의 입장을 실현하기 위해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업소에서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편히 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이미 굳혔다.

다만, 주민 여론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광범위한 협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온라인 여론 조사를 실시 중이다. 추측컨데 편의점까지 문호개방을 결정했으나 명분쌍기를 위한 여론 지지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권 15년 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주의원, 연방의원 그리고 정부 고위층을 대상으로 온주편의점협회(OCSA)나 전국편의점협회(CCSA)와 공조하에, 때로는 협회 단독으로 가열찬 로비를 벌여온 열정이 결실을 거두기 일보 직전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협회 회원은 물론 회원 가족 그리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까지 동참시켜서 편의점 주류판매를 온타리오 주민 대다수가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모습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절실하다.

해당 사이트 주소는 www.ontario.ca/alcoholconsultations 이며 상단의 'take the survey'를 클릭하면 설문항이 나온다. 협회 웹사이트 www.okba.net 공지사항에도 링크되어 있다.

설문서는 모두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이 선택형으로 시간은 불과 몇 분이면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회원들의 손가락 끝에서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 여부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작성해 클릭토록 한다. 이하 설문항을 간략한 의미전달 수준으로 번역한다.

1. 신분은?

- 소비자 소매업주 술집 주인/종업원
- 주류 제조업자/에이전트 기타 답하기 싫음

2. 주로 술은 어디서 사는가?(복수 응답 가능)

- LCBO/대리점 비어스토어 식품점 민영 와인스토어
- 양조장 직판점 기타

3. 술 구입 시 경험상 가장 개선할 점이 많은(불만인) 채널 순위로 1부터 5에 표시하십시오(*1은 가장 불만이 많다는 의미이며 5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의미임)

위의 2번 질의 5개 채널마다 불만 혹은 만족의 정도에 따라 각각 1-5 중 한 곳에 표시할 수 있고 5개 채널 모두를 마크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곳만 표시하면 됨.

4. 3번 항목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500단어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안해도 무방)

5. 현재의 온타리오 주류 소매 시스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는?

- 매우 만족 만족 중간 또는 의견 없음 불만 매우 불만

6. 술 판매 업소와 관련해 기대하는 변화의 모습은?(복수 응답 가능)

- 더 많은 장소 더 많은 민영 소매업소 더 많은 주류 판매 전문 업소
- 타 상품과 주류 품목 동시 구입의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온타리오산 제품
- 더 많은 타주 제품 더 많은 수입 상품 가격 저렴
- 현행대로(변화 불필요) 기타

7. 소매업소가 추가로 증대될 수 있다면 소비자 혹은 사업주로서 어떤 유형의 업소가 가장 바람직한가?

- LCBO/대리점 비어스토어 식품점 민영 와인스토어
- 양조장 직판점 대형유통업체 편의점 기타

8. 현행 온타리오 주류 소비 관련 규제에 관한 귀하의 평가는?

- 너무 엄격함 적당함 아주 엄격하지는 않음 잘 모름

SIGN UP WITH MONERIS
AND GET **PREFERRED RATES**
THROUGH THE OKBA MEMBERSHIP.

moneris.com/associations **Moneris**
1-877-789-5335 BE PAYMENT READY

9. 위 8번 관련해 온타리오 주류 소비에 대한 현행 규제에서 변화해야 할 점은? (*500 단어 이내로 기술하되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10. 온타리오 주류 시스템과 관련한 귀하의 여타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500 단어 이내로 기술하되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11. 연령대
12. 거주지
13. 12번 거주지가 온타리오인 경우 더 구체적으로 사는 지역

이상이 13개항의 질의 항목이다. 1번은 신분에 관한 것이고 2~7번까지는 주류 판매에 관한 사항이며 8~10은 소비에 관한 사항이다. 11번에서 13번은 인구통계적 자료를 위해 필요한 질문항이며 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원으로서 편의점 주류판매 허용을 지지한다면 상기 질문항 중 3, 5, 6, 7번 항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항목이다. 현행 주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3번과 5번을 통해 표출돼야 하고 6번은 '더많은 장소(more locations)와 더 많은 민영 소매업소(more private retailers)를 선택해야 하며 7번은 당연히 '편의점'(corner store)에 마크가 돼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만 설문 조사를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참가하고 가게 손님들에게도 사이트를 알려주며 참여를 독려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본 설문 조사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적인 여론 조사이며 본 조사를 통한 결과 및 이에 근거한 모든 활용은 정보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라 공익적으로 취급된

다. 온주 정부의 주류 소매업 및 소비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재무부가 활용할 것이다. 또, 조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는 조사 기간 중 혹은 조사 완료 후에 공개될 것이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 시행에 관해 빅 피델리 재무장관은 "온타리오내 주류 판매와 소비의 선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늘 명쾌했다."면서 "고객에게는 편리함과 선택 범위 확대를, 비즈니스에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의 주류 정책 현대화 작업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 첫째, 비어, 사이더, 와인, 독주 판매 및 소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둘째,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군,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대형 유통업소 그리고 더 많은 식품점에서 주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셋째, 민영 부분의 판매자 및 공급자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 사회의 공공안전과 공중보건을 지킨다.

피델리 장관에 의하면 온타리오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온타리오의 주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는 이미 지난 12월 2일자로 소비자 편의 증대를 위해 예외없이 1년 36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이 영업시간은 대리점이나 허가받은 식품점도 마찬가지다. ■



POS, ATM, Debit and Credit Card Services Company




FULL INTEGRATION SYSTEM
일체형 연동 시스템

Tel 1.888.554.7355
www.1solutions.ca / email : info@1solutions.ca

P / O / S S / Y / S / T / E / M

- 데빗 단말기 연동
Debit terminal device integration
- 한국에서 설계 제조 및 테스트 됨
Designed, manufactured, and tested in Korea
- OLG 온라인, 스크래치 티켓, Winning Ticket, 바코드 형식 시행
OLG Online, Scratch Ticket, Winning Ticket Barcode System Implementation
- 클라우드 서버 사용
Cloud Server to download and upload data
- POS System을 이용해 매장의 모든 정보를 "Back Office" 소프트웨어에 저장
POS System to store all the information of the store in "Back Office" software
-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클라우드 서버의 보안성 보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서버 속도
We use world's most respected cloud server provider to ensure data security and unparalleled server speed
- LCBO Software 지원
LCBO Software Support
- 모든 장비,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설치 총 \$2500
Fully equipment, including software, training, and installation for only \$2500
- 모든 영업 운영과 경영을 포스로 가능
All sales operations and store management are made possible through our POS system

The best rates for the best customers

Business Type	Discount Rate	Transaction Fee	Brand Fee	Non- Qual
Convenience Store	1.40%	No Charge	0.1%	0.3%
Other Type of Business	1.40%	No Charge	0.1%	0.3%

Business Type	Chip & Swipe	Tap & Flash
Convenience Store	3.65 cent	5.65 cent
Other Type of Business	3.65 cent	7.15 cent

- NO STATEMENT FEE (무료 우편 또는 EMAIL 발송)
- NO HIDDEN CHARGES
- NO CONTRACT
- SIGNING BONUS \$300
- DEBIT MACHINE 문제 발생시 - TECH SUPPORT 24/7
- YOUR SATISFACTION IS OUR GOAL

Office 905.560.4511 / Fax 1.888.554.0409



“편의점 주류판매 밀어주고 당겨서 반드시 이루자”

2018 大尾, 집권여당과의 밀월 확인하며...




▲ 집권여당 의원 4명이 동시에 본부협회를 방문해 편의점 주류 판매 성사를 위한 호응을 맞추며 강한 유대감을 확인했다.

다사다난했던 협회의 2018년 한해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 들어선 온주 정부 여당과의 돈독한 유대를 확인하며 유종의 미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본부협회 회의실은 집권 여당인 보수당 소속 4명의 의원과 보좌관들 그리고 협회 임.직원과 지구협회장, 회원들이 자리를 꽉 메웠다. 그리고 노인복지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조성준 의원이 주류 시스템 현대화 계획에 관한 설명을 주도했다.

주류 시스템 현대화 계획은 지난 자유당 정권 시절에 제 1 야당이었던 보수당이 주류 소매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추진했던 정책으로 집권 즉시 깊은 검토를 거치고 12월13일에 정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여론조사에 이미 착수했다.(여론 조사 관련한 내용은 본 호 6, 7면 참조) 그리고 2018년 의회 회기가 종료되던 이날에 여당 의원 여러명이 함께 협회를 방문해 직접 설명을 가지면 회원을 포함한 한인 커뮤니티 전체에 정책 취지가 널리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일정을 잡게 된 것이었다.

설명회를 이끈 조 장관 역시 정부 자료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스카보로 노스 (Scarborough North)의 의원(MPP)으로서 정부의 주류판매 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입장이었다. 조 장관은 대형 유통 채널들에게 일요 영업을 허용하는 정책 지지 캠페인을 비롯해 협회를 대변해 열심히 뛰었던 과거의 인연들을 회상하며 협회와 자신의 깊은 유대의 역사를 강조했다. 또, 자신의 의원 재선에 협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깊은 감사의 말도 전했다. 조 장관은 “현 보수당 정부는 주류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편의를 증대시키며 편의점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영업 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코자 한다.”고 정



아담유 합동 법률그룹

Adam Yoo Stigler Nguyen & Associates

각 분야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여러분의 법률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 드립니다.

<p>교통사고, 개인 상해</p> <p style="font-size: x-small;">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교통 사고 후유증에 관한 최대 보상, 낙상, 정부 과실 보상 소송</p>	<p>교통위반 티켓</p> <p style="font-size: x-small;">과속, Stunt Driving, 무보험, 신호 위반, 행소니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p>	<p>형법</p> <p style="font-size: x-small;">음주 운전, 폭행, 절도, 사기, 마약(Drug) 보석(Bail) 등 모든 형법 위반</p>
---	--	---

- * 형법
- * 소액재판
- * 복권 판매법


- * 가정법
- * 세권, 세입자 분쟁
- * 담배 판매법

- * 민사소송
- * 주류 판매법
- * 회사 설립

* O.D.S.P. 신청(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1년 이상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시 청구 가능.

**“강력한 실력, 오랜 경력, 섬세함으로
모든 법률 문제 해결”**

변호사 : Leonard Stigler, Mai Nguyen, Shiv Passi
법무사 : Adam K. H. Yoo, David Song, Mark Ginz
Kate N. Han, Hassanein Bhaloo,
Earl Francis Dacara



T : 416.739.8887 / 647.891.8867 / F : 416.739.7559
1018 Finch Avenue West, Suite #100, Toronto



▲ 주류판매시스템 개선책 홍보를 위해 협회를 방문한 의원들과 OCSA대표.(왼쪽부터 조 장관, 호가스 의원, 쿠제토 의원, 조성훈 의원, 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

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많이 동참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 문제는 이미 발표된 지난 가을의 경제동향보고서에 포함된 사항이며 여론 조사는 정부가 주류 판매 관련 현행법을 손보려는 사전 정치 작업으로 풀이된다.

장관의 발표에 이어 협회 소재 지역구인 이토비코-레이크쇼어(Etobicoke-Lakeshore) 출신 크리스틴 호가스(Christine Hogarth) 의원이 정책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으며 연이어 이토비코 이웃인 미시사가-레이크쇼어(Mississauga-Lakeshore) 출신 루디 쿠제토(Ludi Cuzzetto) 의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의원으로는 마지막 순서에 스탠 조(Stan Cho; 한국명 조성훈) 의원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 이민 세대의 부모들이 겪은 희생을 감동적으로 묘사해 장내에 잔잔한 감흥이 흐르게 했다.

이날 정치인들의 발언들은 무게감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

지 않고 자연스러워 마치 사랑방 좌담회를 하듯 격의없었고 시종일관 웃음꽃이 피었다. 그리고 온라인 여론 조사에 적극 동참하자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됐다.

한편, 발표장에는 온주편의점협회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도 참석해 발언 기회를 가졌다. 또한, 협회의 실질적인 전담 로비회사 그래스루츠(Grassroots Public Affairs)의 피터 시맨(Peter Seeman) 대표도 직원과 함께 참석해 교분을 다졌다. 공식적인 설명회에 앞서 이미 4시 전후해 의원들과 협회 임원들이 당도해 다과를 들며 친밀한 네트워킹 시간을 즐겼다. 협회 역사상 이번처럼 큰 규모의 정치인과 유관 단체장들의 일시 방문은 처음이다. 협회 측도 회장, 이사장, 지구협회장과 평회원 등 30여 명 가까이 회의실을 메워 행사의 의미를 실감케 했다.

한편, 동포 언론으로는 아리랑 TV가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했으며 발표회 시작 전후로 조 장관과 신 회장 인터뷰도 했다. ■



onewholesale.ca

Smoke Shop / Headshop / Convenience Store Wholesaler

Authorized Zippo Dealer

원도매상

Order online by noon for **SAMEDAY SHIPPING**

*Ask for Free Zippo Display

BONGS, DAB RIGS, BUBBERS, RECYCLERS, HAND PIPES, E-CIG, VAPORIZERS, GRINDERS, DUGOUTS, SCALES, SMOKING PAPERS, ALL KINDS OF SMOKING ACCESSORIES ZIPPO LIGHTERS, and ETC.

Business Hours

Monday to Friday
9.00am - 5.00pm

Saturday
9.00am - 2.00pm

Closed on
Sunday and Holidays

Cash & Carry Store

606 Magnetic Dr Torono, ON M3J2C4

onetradingltd@gmail.com

T. 416 661 6664 F. 416 661 6668

주요 장면

조성준 장관, 집권여당 의원 본부협회 방문



크리스틴 호가스 의원의 지역구 연고 회원들과 함께



스탠 조 의원의 지역구 연고 회원들과 함께



루디 쿠제토 의원 지역구 연고 회원들과 함께



조성준 장관이 정부의 주류판매시스템 현대화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며 OKBA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하고있다.



신재균 본부협회 회장이 옴니(OMNI)채널에 방영될 아리랑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의 발표에 앞서 의원들과 다른 관계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데빗 머신 관련

공지사항



회원 여러분의 업소에서 사용하는 데빗 머신과 관련한 잦은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와서 서비스 회사측의 갑질 횡포와 불성실이 여전히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유형도 다양해 지난 수년간 본부협회는 단발적이고 간헐적으로 건진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협회 상담 실적의 가장 최근 정리된 자료를 보면 2016/2017 회계연도 분야별 고충 상담건에서 데빗머신 회사의 불성실한 서비스로 인한 불만이 공급사 배달 서비스 불만 사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32건)



이 중 거래수수료 과다, 서비스 불손, 계약연장 시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최근 실적이지만 데빗 머신과 관련한 회원들의

불만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임기응변적인 사례별 대응 해결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제에 본부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데빗머신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접수해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회사 측과 접촉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임의로 작성해서 본부협회에 팩스 송부바랍니다.

회원 정보	성명/업소명/사업체 주소/전화번호
데빗머신 회사	
불만 및 요구사항	
기타	

대략 위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작성해서 본부협회(팩스 416-789-7834)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FEEL THE NICOTINE RUSH

STI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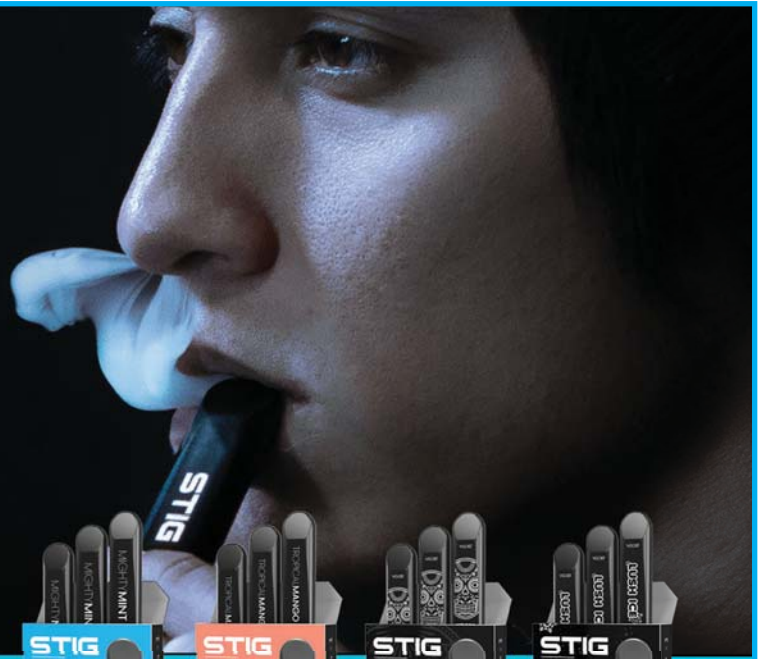
DISPOSABLE POD DEVICE

FULLY CHARGED
OUT OF THE BOX

1.2 ML
SALTY LIQUID
PER STIG

6.0%
NICOTINE
BY VOLUME

20
CIGARETTES
APPROXIMATELY



Fresh Cool Mint

Juicy Sweet Mango

Rich Creamy Cigar

Iced Watermelon

도매문의 : 416.419.3751

*판매 세일즈하실 분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간편한 최첨단 일회용 전자담배

2019 캐나다 편의점 주요 이슈 전망

올 한해 캐나다 편의점 산업이 다방면에 걸쳐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마냥 대마초만 바라보며 나무밑에 누워 감떨어지기만 기다리는 피동적이고 무기력한 시장을 펼칠 것인가 관심이 쏠린다. 편의점만이 아니라 모든 소매업계가 극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은 유례없이 기민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업계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잘 대처해 성공으로 가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주저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헬쓰는 웰쓰다!

건강과 부(富)는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데 편의점 업계와 관련해 이 말의 의미가 크게 다가온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현대인에게 이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건강 대체물(상품)이 올 한해 전국적으로 편의점 성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치된 입장이다.



육류를 기피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채식주의자와 비건(vegan; 극단적 채식주의자)이 식문화에서 주류의 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A&W의 비육류로 만든 버거인 '비온드 미트버거'(Beyond Meat Burger)가 이 현상을 실감나게 한다. 캐나다 시장에 상륙한지 불과 6주가 지난 작년 8월 중순에 이미 비축 원료가 떨어져 제품이 동이

났다고 한다. CEO 수잔 세네컬씨는 밴쿠버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W Canada는 본사가 밴쿠버에 소재) "신상품 비온드 미트버거가 어찌나 인기가 대단했는지 금방 재고가 바닥이 났다. 예상대로의 성과를 확인하고 너무 기뻐고 인기가 계속 유지될 것을 확신한다."

A&W는 비온드 미트사와 제휴해 식물성 비온드 버거를 개발 출시해 폭발적 인기를 누리던 것인데 겉보기에는 일반 고기처럼 보인다. 냄새도 고기 냄새에 맞고 고기 맛이 난다. 하지만 완두콩과 녹두를 사용해 단백질을 듬뿍 담고 있어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적인 것이 건강을 의식하는 소비자들의 큰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

밀레니얼/Z세대 뭘 원하나?

건강 대체 식품에 대한 트렌드는 밀레니얼과 바로 뒤를 잇는 Z세대(Gen Zers)가 단연 주도하고 있다. 이들 두 그룹은 전세계 인구의 64%를 구성한다. 캐나다(연방통계청 자료) 밀레니얼층은 27.1%로 약 1천만 명을 약간 상회한다. 이 소비자층을 잡으면 만사 오케이다. 뭘 하든 대박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그리 만만치 않다. 이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기는 참 어려운 것이 기대치가 너무 높다. 시장조사 전문 기관 애버커스 데이터(Abacus Data)의 CEO이자 본인도 밀레니얼 세대인 데이빗 콜렛토씨는 밀레니얼 전문가로서 젊은 소비자층의 행동

유발 주 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작업에 한창이다. 그의 조언은 다소 혹독하게 들린다. “담배, 기름, 복권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손님 트래픽도 소강상태를 보이며 여러 품목군들이 두루 감소 및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냉정한 진단을 편의점 업계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말하는 콜렛토 회장은 “밀레니얼 소비층이 편의점에서 원하는 제품은 당장 아쉬울 때 그 어디서도 선택 구하기 쉽지 않은 품목들이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특정 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명확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콜렛토씨는 성공적 편의점은 다른 식품 관련 소매업소와는 차별화된 어떤 제품군을 가지고 경쟁 채널들과 싸울 줄 아는 업소다. 일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장점이다. 이 장점을 살려서 소비자들이 특별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아쉬울 때 아무때고 들러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업소로 만들면 무조건 성공이다.

변신의 물결



커피 한잔에 더 이상 줄을 서고 싶지 않다! 모바일 주문하고 다른 곳에서 볼일 보다가 시간 맞춰 가서 픽업만 하면 되는 세상이다.

전체 소매업계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편의점이든 식품점이든 혹은 다른 어떠한 유형의 소매업소가 됐든 모바일 주문과 같은 디지털 혁신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다. 미국쪽 스타벅스는 SNS를 통한 주문으로 주문 횟수가 13% 증가했다. 그리고 디지털 주문은 날로 증가해서 이제 이 회사의 성장 핵심 동인을 모바일 주문 시스템에서 찾은 지경이라고 한다.

2019년 편의점 업계는 기성조리음식(grab-and-go) 서비스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업소들이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시련을 많이 겪는 한해가 될 것이다. 푸드 서비스에서의 모험적인 실험들이 왕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바탕으로 갖가지 혁신이 시도될 것이지만 또한 가시적인 오프라인 공간 즉 업소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매출 촉진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콤부차, RTD커피, 에너지 드링크



소비하기 편하고 기능성이 돋보이는 제품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즉석 커피(일명 RTD커피), 콤부차, 스포츠/에너지 드

DUKE'S

Freshly Crafted Smoked Meats

천연 통째 재료 훈제육

소량의 설탕 사용

얼리지 않은 신선한 돼지고기

천연의 통째 재료

특별한 나무로 실제 훈제

소량 분배 생산 표시

193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BIGS

단백질 가득! 맛과 향이 풍부!
시드(SEED) 스낵!

직화구이

VS.

최고급 점보 씨앗

풍부한 맛

DIRECT TO STORE DELIVERY CONTACT: E: customerservice@metro360.ca | Toll Free: 1-888-639-7868

링크가 주목된다. 유료모니터 인터네셔널 수석 음료분석가 매슈배리씨는 “편의점 선반에서 즉석 커피가 차지하는 공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추세가 더욱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석 커피 또는 RTD(Ready-TO-Drink)커피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친숙하게 소비돼오고 있는 캔커피를 생각하면 된다. 용기에 담겨 있어 사 들고 나와 바로 아무곳에서나 마실 수 있는 커피다. 편의점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는 스타벅스의 병에 담긴 프라푸치노 제품이 바로 RTD커피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현상의 가장 큰 배경은 콜드 브루 커피의 대중화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조사들이 트렌드 조사 후 혁신을 얻고 있는 대거 RTD 커피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신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된 것이다.

레이디가가, 린제이 로한 등 미국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 마시는 건강 음료로 알려진 콤부차가 북미주는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로까지 퍼져 나가며 일대 붐을 이루고 있다. 발효차의 일종으로 고대 중국에서 유래되고 있는 건강 음료인데 위장 건강에 좋고 암예방, 해독 효과 등에서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가정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대중화되고 있는 다양한 콤부차 제품을 소매업소에서 손쉽게 사 먹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는 과거와 같은 폭발적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이며 편의점 음료 매출의 강자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 건강 조리완성 메뉴(healthy on-the-go)

아무리 시간이 바쁜 현대인들이라고 하지만 편의점 고객들도 간편 식사 대용물로 핫도그나 나초스를 대신할 건강에 유익한 간편 끼니거리를 꾸준히 찾고 있다. 유료모니터 분석가 밥 호일러씨는 “해가 거듭될수록 현대 소비자들의 시간 압박감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당연한 결과로 온디고(on-the-go)음식에 대한 수요와 인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편의점 업주들의 푸드서비스 전략에 대한 답이 나온다. 더운 음식으로 조리완성 메뉴의 다양화를 갖추고 바쁜 손님들의 간편 영양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킨다면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다.



■ 쿠쉬타르의 계속되는 진군

캐나다 유통업의 자존심이자 세계 편의점 업계의 공룡인 알리망타시용 쿠쉬타르가 아시아 시장 마케팅에 화력을 집중해서 쏟을 전망이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인수 합병은 늘 하던대로 일어나겠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이 크다고 한다. 그래서 선택한 시장이 아시아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계속 눈에 띄듯이 서클케이(Circle K)로의 브랜드 교체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시장의 강자들(Market Masters) 이라는 베스트 셀러 저자 로빈 스페지알레씨는 “쿠쉬타르가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먹이감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혼란 속에서도 커나가는 비

전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사할 수 있겠는가 관심이”라고 평했다. 대표적인 예로 전기 자동차, 무인승용차 시대를 들며 이것이 대세가 될 경우의 편의점을 비롯한 소매업계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페지알레씨는 덧붙여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디맨드의 사전적 정의는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 및 전략이다. 2002년 10월 IBM의 CEO인 샘 팔미사노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며, 공급자가 상품을 만들어 가판대에 올려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을 시간과 공간에 맞게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화한 결정판이 바로 요즘 온라인 주문으로 택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품들이 넘쳐나는 세태이며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온디맨드 경제라고 한다. 스페지알레씨는 이 온디맨드 경제가 패스트푸드 - 예를 들어 우버 택시로 음식 배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고 앞으로 소규모 구입, 예를 들어 초콜렛바, 음료수 등 몇가지 주문하면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조만간 트렌드화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이 만연되면 오프라인의 편의점 비즈니스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할 지 깊이 생각해볼 이슈가 된다. 캐나다 편의점 지존 쿠쉬타르도 바로 이런 고민의 지점에서 사세 확장이 흔들림 없이 가능한 경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 무인 자동화 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가 이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시범 매장을 열

모두들 더 싸다고 말하지만
“진짜 착한가격은 78 Trading”



Water Pipes



Glass Pipes



Vaporizers



Grinders



Rolling Papers



Scales

이외에도 다양한 스모킹 제품 및 잡화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McNicoll Ave.

Business Hours

Monday-Friday
9:00AM-5:00PM

Saturday
9:00AM-1:00PM

Sunday
Appointment



78 Trading

528 McNicoll Ave. North York M2H 2E1
www.78trading.co | contact@78trading.co

437-777-7878

78trading

어 운영 중에 있으며 시애틀 이외의 지역에서 2019년에도 자동화, 무인화 편의점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스캐너와 카메라, 계산을 위한 앱 기술의 놀라운 진전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이상 줄을 설 필요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종업원은 그저 고장을 대비하거나 재고 채워넣기 용도 이외에는 전혀 할 일이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자동화에 무인화가 되면 결국 고용 창출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져 생각해볼 과제일 것이다.

대도시는 일단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보니 이에 연동해서 전반적인 생활비가 매우 높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인건비를 줄이고 제품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무인 자동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체인 편의점사 입장에서도 스마트하고 모던한 전략이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그러나 편의점 무인화가 캐나다에까지 빠른 확산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준비 단계 정도는 진척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한다.

■ 차세대 자판기



▲ 24시간 약국과 24시간 푸줏간 기능을 담당하는 기발한 자판기.

미국에서 등장한 두가지 특기할 자판기가 있는데 하나는 파마박스(Pharma Box)이고 또다른 것은 애플스톤 미트(Applestone Meat Co.)이다. 약품과 신선한 고기를 자판기에서 사는 세상이 됐다.

전자는 의사처방없는 일반 의약품(over-the-counter pharmacy)을 구입할 수 있는 자판기다. 생활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신선한 육류를 소량으로 포장한 제품인데 이를 자판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판기는 24시간 일년 365일 항상 개방돼 있어 아무때고 시간 구애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밤중에 뱃속이 출출하고 고기가 맵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요긴한 밤참 재료 제공 최고의 편리한 자판기가 되고 있다. 요리도 거의 다 돼 있어 간단히 손봐서 데우기만 하면 된다.

(17면에 계속)



2/0/1/9 OKBA 장학생 선발 공고

본 협회는 회원 자녀들의 학업 정진에 대한 격려 및 회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지구협회장 추천서
3. 성적증명서(학교에서 직접 발행한 증명서
학교 온라인으로 프린트된 증명서는 접수 불가)
4. 자기소개서(Essay)
- 심사항목 : 사회봉사 활동, 미래지향적 비전

진행 일정

- 1월 31일 (목) 신청서류접수 마감
(*우편접수시 소인날짜 기준)
- 2월 13일 (수) 신청서류 심사 (장학분과위)
- 수여자 최종 확정 통보
(심사 완료 후 즉시 우편통보)

신청 자격

1. 2년 이상 연속 협회 회원의 자녀
(2017년 1월 31일 이전 회원 가입)
2. 접수마감일(2019년 1월 31일) 까지 정회원 자격 유지
3. 본 장학금 첫 수혜자로 2년차 이상 재학 중인
플타임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4. 당해년도 성적증명서에 F학점 과목이 없을 것.
5. 당해년도 한 가정 한 자녀에 한함.

기타

- 신청서, 지구협회장 추천서는 협회 웹사이트
www.okba.net 공지사항에서 출력
- 서류미비 및 마감 후 접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멀티 로컬리즘의 실체는 한마디로 “자기지역, 고향 토착 기업, 지역특화 제품, 지역 고유 관습에 대한 애착과 선호도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카니 컨설팅의 이 주제 관련 담당 매니저 코트니 맥케프리씨는 한 업계 전문지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로컬 제품, 달리 말해 개성 지향적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가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소비자들은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지역 브랜드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고 이는 특히 밀레니얼과 이보다 더 아래 세대 젊은층들에게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지역 토착 제품들은 젊은층만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전국 지명도를 자랑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과거에 비해 덜 보여주고 있다. 그 대신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를 성심으로 지원하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행태에 대한 2017년의 또다른 전문 기관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55%가 빅 브랜드에 대한 매우 미약한 신뢰를 보이고 있거나 아예 등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빅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36%였던 것에 비해 불과 5년 사이에 신뢰도는 더욱 크게 약화된 것이다.

지역 토착 제품에 대한 호감 증대는 물론 소비자 선호도 변화도 한 원인 이지만 기업 정책 현대화, 기술 발전, 그리고 기업 경영 또는 소유 구조, 태도 등의 변화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지역특화 혹은 지역화의 또다른 추동력은 환경 이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오늘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입 물품 - 먹거리든 공산품이든 - 이 지속가능성에 여하한 영향을 주는지를 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 지역 토착 제품은 장거리 유통도 필요없기 때문에 시장까지 도달하는데 화석 연료 소비도 훨씬 덜하며 짧은 거리의 이동 덕분에 지역 먹거리들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 대면을 통해 아주 신선한 수준의 제품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애향심 마케팅에 이미지와 실속 모두 챙겨

스토리가 있는 지역 특산물 호감 증대



▲ 펜실베이니아주에 가맹점이 집중돼 있는 체인 편의점 러터스(Rutter's)의 푸드서비스 주문 터치스크린 모습. 메뉴판에 '로컬'이라는 표시가 돼 있는 장면이 이채롭다. 지역에서 개발해 해당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을 재료로 즉석 요리를 제공하는데 대박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부터도 호감을 얻게 돼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기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품 등등 애향심에 바탕한 자기 지역 고유의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 호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은 더욱 각별하다.

전국적 혹은 글로벌 브랜드보다 이렇게 애향심에서 발동한 자기 지역 특산 먹거리 사랑이 깊어지는 추세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해 보이지만 앞으로 기세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고 기반도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영컨설팅 전문 회사 에이티카니(A.T.Keamy)에서 최근 발표한 '다원적 지역주의 시대에서의 경쟁'(Competing Age of Multi-Localism)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의 핵심 주제다.



▲ 외곽지역의 협회 한 회원 업소가 취급하고 있는 해당 지역 특화 아이스크림. 전국적 브랜드보다 명망과 인기가 높아 매출이 더 높다. 업소 소재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토산 먹거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급해보는 것도 매출 증대의 훌륭한 방안의 하나임을 모든 전문가들이 강조한다.

먹거리는 지역특화 분야에서 가장 예민한 카테고리이며 따라서 지역 특산 식음료 취급 시 소매업주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기준이 있다. 우선 지역특화 상품이 자신의 가게에서 손님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

각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에게 먹힐 구체적 아이템 선정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편의점은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기존 제품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지역 토착 인기 제품을 추가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지역 상품이 뜬다고 무조건 들여놓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적절한 제품 믹스 전략 차원에서 로컬 상품과 전국 상품의 황금 비중을 자신의 업소 특성에 맞춰 잘 균형잡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화는 북미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아니다. 글로벌 차원의

현상이고 전국적 규모의 회사와 지역 토착 기업들간의 경쟁 관계가 서서히 달아오르는 와중에 있다. 한쪽은 긴장하고 또 한쪽은 더욱 도전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앞의 컨설팅 회사 맥캐프리지의 말로 지역특화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지구촌 기업의 89%가 이미 지역특화 전략 실행에 착수했거나 계획 중이다.” 외곽쪽의 편의점 잘 되는 곳을 가보면 해당 지역 특산 식음료가 몇가지는 반드시 포함돼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트렌드를 입증해주고 있다. 자신의 업소 소재지와 지역 토착 인기 아이템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

〈15면에 이어〉 2019 캐나다 편의점 주요 이슈 전망

애플스톤 창립자 조슈아 애플스톤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1950년에 살고 있지 않다. 9시 출근 5시 퇴근은 이미 옛말이며 식사는 아무때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다.” 밤참이 건강에 해로우니 어찌니 하는 말도 이 정도 되면 전혀 호소력이 없어 보인다. 미국쪽에서 시작된 것은 금방 캐나다 시장에 상륙하니 지켜볼 일이다.

■ 마리아나 소매 판매

연방의 합법화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각 주와 준주들의 입법화와 세부 시스템이 수립됐거나 이미 집행되고 있는 중이다. 온타리오의 경우 이전 자유당 정권에서는 소매업이 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가 정권이 보수당으로 바뀌며 폐기되고 편의점



까지 포함해 민영 시스템으로 변경돼 기존 편의점을 비롯한 업주들과 새로이 이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

온타리오 봉사상 신청 공고

Ontario Volunteer Service Awards



OKBA 한인실업인협회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매년 온타리오 봉사상을 수여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영리단체나 조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86년부터 이 행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은 봉사 기간에 따라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 등 총 9종이 있습니다. 협회에도 매년 추천의뢰가 오고 있으며 최대 6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2019년 추천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지하오니 지구협회장은 소속 회원들 중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인원

6명 (OKBA가 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최대 인원임)

2. 추천대상

OKBA 회원으로 5년 이상 협회 (본부협, 지구협)를 위해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한 자.

(*5년 이상 기간은 중간에 단절이 있으면 정부측 기준에 따라 추천 불가능)

3. 추천방법

회장단, 이사장단이 추천한 자, 지구협에서 자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지구협회장이 추천한 자.

(*주정부로부터 이미 명예 또는 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

4. 신청마감

2019년 1월 16일 (수)

5. 신청서 양식

양식은 협회 웹사이트 www.okba.net 공지사항 '온타리오 봉사상 신청 공고'에서 '추천서'양식을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과 함께 별지에 '추천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된 추천서류는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 175 The West Mall, Etobicoke, ON M9C 1C2

- 전화, 416-789-7891

- 팩스, 416-789-7834



돼지에 얽힌 고사성어



2019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己亥年) 돼지 해다. 그냥 돼지 해도 아니고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는데 아니 작년에는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라고 하더니 무슨 황금이 연이어 붙어다니는지 궁금하다. 사실 2007년 돼지해도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해"라고 어지간히 난리법석을 떨고 연말부터 시끌벅적했었다. 그런데 12년만에 또 황금돼지라니... 어쨌든 금불이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 이쯤 해두자. 닭에서 개로 이어 이제 돼지해를 맞는 상황이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심정들이 아니길 바라며 올해는 돼지꿈이라도 꾸기를 기대한다.

역술가들의 글을 보니 "기(己)는 들판이요 해(亥)는 호수라~" 물을 가진 들판이 어찌 풍요롭지 않겠는가 하여 이 한해가 풍요로울 것이라고 풀이한다. 참으로 듣기 좋은 얘기다. 올해 실험 뉴스 첫호 교양상식도 예년처럼 띠에 얽힌 고사성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우선 교양스러움의 기초 공사로써는 무엇보다 단어 공부부터 철저히 돼지를 의미하는 한자는 저(猪, 豬), 시(豕), 돈(豚), 해(亥), 체(彘)가 있다.

올해 기해년에서 '해(亥)'가 돼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겠다. 다음은 돈가스로 일본에서 유래한 돈카츠(豚カツ)의 '돈'이 있다. 돼지고기를 의미하는 한자 돈(豚)에다가 영어의 포크 컷렛(pork cutlet)에서 포크는 앞의 한자 '돈'으로 대신했으니 날리고 컷렛만 일본식 발음으로 카츠레트를 붙였다가 그것도 길어 카츠만 남기고 합해진 것이 바로 돈카츠이고 이것이 우리 발음으로 돈가스가 됐다. 돈육(豚肉), 양돈(養豚)이라는 단어도 있다.

다음으로 저(猪)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돌적(猪突的)'이라는 단어다. 말 그대로 멧돼지가 앞뒤 안가리고 돌진하는 모습에서 나온 표현이다. 또다른 돼지인 저(豕)는 제육(猪肉)볶음이 있다. 원래 저육이라고 해야 맞지만 오랜 옛날부터 음운의 변화를 겪어 제육이라고 변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진 1980년대부터 돼지고기로 볶음을 만들어 먹으면서 '제육볶음'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됐다. 또 다른 요리로 전라도와 제주도 고유의 요리인 애저회 또는 애저찜이라고 있다. 여기서 '저'가 바로 한자 '豕'이며 '애저'는 따라서 어린 돼지 또는 돼지 태아를 의미한다.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의 삼장법사 제자 저팔계(猪八戒)의 이름에도 바로 돼지를 의미하는 한자 단어 저(猪)를 쓰고 있다.

시(豕)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다른 단어의 부수로 많이 쓰이고 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고사성어 '요동지시'에서는 글자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彘)'는 체견(彘肩)이라는 단어가 있다. 돼지어깨살이다.

한자는 이쯤하고 우리말도 살펴보자. 우리말의 돼지는 어원적으로 '돌'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이 돌에다가 어린 것을 의미하는 '아'가 합쳐져 (돌+아) → 도야지 → 돼지로 변화되어 왔다는 설이 있다.

돼지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축의 한 구성원이 된 이래로 수많은 세월을 사람 곁에서 줄곧 함께 살았다. 생각보다 인간의 말귀를 잘 알아먹고

영리하며 깔끔하다. 아무거나 주는대로 잘 먹고 우리안에서 대충 뒹글다가 알아서 크고 죽어서는 아마 털을 빼고는 온 몸을 다 고기로 인간에게 제공하는 고마운 동물이다. 심지어는 오줌보조차 못살던 어린 시절 시골에서 축구공 대용으로 인기를 누리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못지 않게 인간의 입에서 개무시당하는 것이 돼지다. 개에 빗댈 때 꼭 돼지까지 콤보로 엮어서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짜잡아 욕을 당한다. 또, 똥가 어지럽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고는 '개관'이라는 말도 쓰지만 '돼지우리같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 청소를 안해 주고 방치해서 지저분해진 것인지 돼지 자체가 지저분하게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돼지는 환경만 청결하면 똥도 한군데다가 누고 나름 깔끔을 떼는 동물이다. 그러나 애완동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고 심지어 껴안고 잠도 같이 자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인간이 할리우드의 말썽쟁이 배우 패리스 힐튼이다. 물론 너무 빨리 커서 수개월 후에는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청결하고 귀여운 짐승이다.

그런데도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면 꼭 돼지를 팔아댄다. 우둔하고 미련한 것도 돼지요, 못생겨도 돼지요, 살이 찌도 돼지요, 심지어 듣기 싫은 목소리도 돼지에 빗댄다. 온통 부정적인 표현 일색이다. 돼지에 대한 비하는 서양이 한술 더 뜬다. 마귀나 사탄으로 묘사할 정도이고 성경에도 돼지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서양 육은 대부분 돼지를 들먹이면 가장 심한 욕이 된다. 그뿐인가 이슬람 권에서는 아예 종교적 도덕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돼서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있다. 부정(不淨)과 금기 식품의 상징이다.

개와 막상막하의 험한 대접을 받고 있는 돼지에 관련한 우리나라 속담을 몇가지만 인용해보자. "그슬린 돼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똥 묻은 돼지, 겨 묻은 돼지 나무란다." 이는 제 처지나 분수를 모르고 남의 안된 처지를 비웃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처지에 가당치 않거나 어울리지 않게 과분한 경우에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돼지 발톱에 봉숭아 물들인다."고 한다. 게으른 성격에는 "마파람에 돼지 불알 놀듯", "일에는 곰뱀이, 먹는데는 돼지" 등이 있다.

아예 작정을 하고 돼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은 없을까 찾아보니 딱 하나가 있기는 했다. 바로 '꽃돼지'라는 표현이다. 귀여운 아이나 사랑스러운 연인의 애칭이다. 그리고 유독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길몽이라고 좋아라 하며 복권까지 사재킨다. 돈(money)과 돈(豚)이 발음이 같아서 유래된 것이라는 풀이도 있는데 그랬거나 말았거나...



◀ 꽃돼지가 애완돼지를 껴안고 있다. 패리스 힐튼의 애완동물 취향은 참 가지가지다. 같이 잠도 잔다고 했다.

이제부터 별로 흔치 않은 돼지 관련 고사성어 몇개를 살펴본다.

■ 돈제일주 [豚蹄一酒]

豚: 돼지 돈 蹄: 발굽 제 一: 한 일 酒: 술 주

“돼지 발굽에다 술 한 잔”이라는 뜻이며 보잘것 없이 작은 것으로 너무 큰 것을 얻으려는 과욕을 힐난할 때 쓰는 고사성어다.

중국 전국 시대때 강대국 초(楚)나라가 대군을 동원해 제나라를 쳐들어 오고 있었다. 당황한 왕은 이웃 조(趙)나라에 구원병을 청하기로 하고, 그 임무를 학식이 높은 신하 순우곤(淳于髡)에게 맡겨 서둘러 떠나도록 했다. 그와 아울러 조나라 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했는데, 나뭇 황금과 이런 저런 진기한 물품을 수레 10대에 가득 실어 준비했다. 그런데, 출발에 앞서 물품을 살펴본 순우곤이 한심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왕이 정색하며 이유를 묻자, 평소에도 비유를 들어 촌철살인의 표현으로 간하기에 능한 신하라 이렇게 답했다. “어제 신이 길을 가다가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돼지 다리 하나와 술 한 잔’ (豚蹄一酒)을 달랑 들고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자기 집 공간만 채우고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것은 그렇게 작으면서 원하는 것은 엄청나 한심한 생각이 지금 문득 들어 저도 모르게 웃은 것입니다.” 순우곤이 보기에 원병을 청하려는 절체절명의 처지에서 선물이 턱없이 빈약 해보여 왕을 짝돌이라고 은근히 책망한 것이다. 왕이 알아 듣고 예물을 10배로 늘렸고 조나라가 이를 받고는 크게 원병을 지원해 놀란 조나라 군대가 급히 철수해 위기를 넘겼다.

■ 불안돈목 [佛眼豚目]

佛: 부처 불 眼: 눈 안 豚: 돼지 돈 目: 눈 목

“부처의 눈과 돼지의 눈”이라는 말인데 어울리지 않는 두 뺨구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그의 멘토인 무학대사(無學大師)가 마주 앉아 나누던 대화 중에 등장했던 유명한 표현이다. 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하고 정국이 안정되어 가자 평소처럼 마주 대한 무학대사에게 이성계는 흥허물없는 분위기를 만든답시고 무학대사를 돼지를 닮았다고 농을 던졌다. 그러자 무학은 태조에게 부처를 닮았다고 대응했다. 뜻을 몰라 이성계가 묻자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이고(佛眼佛示/불안불시),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일 뿐입니다(豚目豚示/돈목돈시)'라고 대답했다. 감히 일국을 세운 태조이지만 들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고 하니 어지간히 사이가 돈독했던 모양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는데 행여 속이 꼬여사물이나 사태를 악의적으로 보거나 뼈뺌하게 보는 사람에게 노골적인 질책을 하기 보다는 “불안불시하고 돈목돈시하는 법이야” 혹은 간단히 줄여서 “불안돈목이로세~”라고 응수해주시라. 뜻을 물으면 타이르듯 일러준다. 그러면 상대는 존경의 눈빛으로 우러르며 틀림없이 교화될 것이다.

■ 요동지사 [遼東之豕]

遼: 멀 요 東: 동녘 동 之: 갈 지 豕: 돼지 시

“요동 땅의 돼지”라는 말인데 견문이 좁고 오만한 탓에 하찮은 공을 득의양양 자랑하는 상대에게 한방 먹이기 위해 쓰면 딱 어울린다.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이라도 한 것인양 요란스레 자랑질을 하는 인간한테 “이런 요동지사같은리구...” 하며 혀를 가볍게 끌끌 쳐주면 된다.

때는 왕망이 권력을 찬탈하고 잠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바람에 망해 버린 전한(前漢)을 마감하고 후한(後漢)을 세운 유수(劉秀) 광무제(光武帝)때 팽충(彭寵)이라는 인간이 있었다. 그는 광무제(光武帝)가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하북에 포진하고 있을때 3,000여 보병을 이끌고 와 공을 세웠고 또다른 전쟁에서 군량 보급의 임무를 잘 완수한 바 있었다. 후한이 건국되고 논공행상이 있을 때 어양(漁陽)이라는 마을의 태수(太守)자리를 제수받았다. 우리식으로 군수쯤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팽충은 포상이 낮다고 불만을 품고 반란을 꾀했다. 그러자 대장군 주부(朱浮)가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그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옛날에 요동(遼東)사람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돼지가 대가리가 흰 새끼를 낳았다네. 처음 본 광경이라 희귀하게 생각하고 그 새끼돼지를 왕에게 바치려고 급히 하동(河東)까지 갔는데, 그곳의 돼지들은 다 대가리가 하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얼른 돌아갔다네. 지금 그대가 그대의 공을 논한다면 폐하의 개국에 공이 큰 군신 가운데에서 저 요동(遼東)의 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비유를 들어 훈계했지만 끝내 말을 안듣고 제멋대로 왕을 참칭하며 맞서다가 2년만에 토벌당했다.

글을 마무리하려는데 2017년 대선 당시의 돼지 발정제 논란으로 코너에 몰려 대선 후보 지위가 크게 흔들렸던 레드준표 홍준표가 떠오른다. 2005년 발간한 그의 자서전의 한 대목에서 대학생 시절 친구에게 돼지 발정제를 구해 친구가 여친에게 먹여 잠자리에 성공하도록 모의했다는 회관한 고백과 후회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리 저리 말을 바꾸며 여론의 못매를 막으려 하다가 끝내 백기를 들고 말았지만 역시 한치의 흔들림없이 대선주자로 2위를 마크했고 패배하고도 당 대표를 이끌었는가 하면 최근 은퇴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주자로 재도전한다고 한다. 정치생명이 참 질기기가 소심줄같다.



▲ 돼지에 얽혀 정치생명과 공직생명이 끊어질 뻔 하다가 되살아난 불사조들. 오른쪽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신문사 주필 이강희 역을 맡은 백윤식이 명대사 “민중은 개, 돼지론”을 설파하는 연기 장면.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으로 파면을 당했던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나향욱의 발언도 다시 생각난다. 그가 파면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파면 취소 처분을 받고 복직의 길을 밟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것이 기억나는데 고위 공무원 또한 명줄이 질기기는 정치인 못지 않다는 씩씩한 느낌을 지울 길 없다.

사족(蛇足): 비만인 사람을 돼지같다고 하는데 이는 돼지의 돈격(豚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정상 체중의 남성과 여성의 체지방이 25~30%인데 반해 돼지는 체지방이 14%에 불과하다. 삼겹살은 뭐냐구? 피하지방일 뿐이다. 게다가 삼겹살은 한국인에게 최고의 먹거리가 아닌가! 돼지해인 올해만큼은 돼지에게 실례되는 비과학적인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

독/자/의/글

휴로니아 지구협회 최승영 회원



본 지면에 소개하는 글은 휴로니아 지구협회 최승영 회원이 지난해 12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던 그날 하루의 단상을 적은 짧은 수필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동료 회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글이라 회원의 허락을 얻어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게도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
잡다한 일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일이 바로 로또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다. 대부분 가난한 계층이 다른 소비 지출 행위를 하지 못하고

로또를 사는 경향이 있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일할 여력이 있음에도 빈둥거리며 로또에나 기대는구나 싶어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가게 열고 처음으로 로또 당첨자가 나왔다. 3불짜리 인스턴트 티켓의 최다 당첨금 7만 5천 달러.

로또 구입 가능 최저 연령 18세를 갓 넘긴 이곳 마을의 처녀가 당첨됐다.

참으로 가난한 부모를 둔데다가 발달하던 초등학교 5년 정도의 남동생이 중병에 걸려 가정의 장녀로 마치 소녀 가장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번 돈으로 가끔 아버지에게 물건을 사주던 효녀같은 바로 그녀가 당첨되어 우리 부부는 눈시울이 다 붉어졌다.

가뭇에 단비같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고만큼의 당첨금이다. 또 다른 행운을 좇아 로또를 사재기하는 바보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운 고비에 비밀 언덕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나에게도 주어지는 당첨금의 1% 커미션 750달러는 어떻게 멋지게 써볼까?

참 기쁜 하루다.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캐나다한인여성회 2019년 1월 프로그램

<p>정착상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착 오리엔테이션 -타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참여 정보 제공 <p>취업상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상담 및 취업 전문 기관 연계, 직업훈련 정보 -실업급여와 근로자의 권리 관련 정보 제공 <p>교육상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민자들의 학교 등록 및 무료 영어 프로그램 안내 -진로 상담 및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p>사회복지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연금, 장애연금 및 정부임대주택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무료 세금보고 <p>가정상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그룹, 가족 상담, 심리안내 -가족폭력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위기지원 -국선변호사 연계 및 가정법 법률 정보 안내 	<p>각종 정부서비스 신청 및 신분증 발급</p> <p>-이력서 작성 및 모의 취업 인터뷰 연습</p> <p>-자녀양육 보조금 신청</p> <p>-정부임대주택 신청 및 생활보조금 신청</p>	<p>중급 ESL Cla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월 9, 16, 23, 30일 (수) -총 4 회기 오전10시 - 오전11시30분 ■ 장소: 갤러리아 스텔점 (7040 Yonge St) ■ 담당: 가정상담원 박주연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 대중교통 안전 서로 다른 문화 이해하기 겨울철 안전을 위한 팀 토론토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 <p>*교재비 포함 등록비 \$20 *정원 15명 (사전등록 필수)</p>	<p>캐나다 시민권 준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월 10, 17, 24일 (목) -총 3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옥 ■ 담당: 정착상담원 김효원, 최성혜, 이선경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시민의 권리와 책임 캐나다의 역사, 근현대사 캐나다의 정보, 사법 시스템 캐나다의 상정, 경제, 지리 문제풀이 <p>*등록비 \$20 (사전등록 필수)</p>
<p>초보맘을 위한 "꿀팁"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월 11, 18, 25일 (금) -총 3회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옥 ■ 담당: 가정상담원 정유연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관련 토론토 보건소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정보 안내 데이케어 및 온타리오 내의 유치원 시스템 안내 육아 보조 지원금 및 토론토 Welcome Policy 신청 안내 육아와 관련된 상담 및 지원 기관 안내 <p>*정원 15명 (사전등록 필수) *유모차를 사용하는 아기 참석 가능, *놀이마트와 장난감이 준비된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아이와 함께 참여가능 *차일드 케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p>		<p>건강정보 시리즈 1: 온타리오 의료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월 28일 (월) 오전10시30분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옥 ■ 담당: 정착상담원 강영옥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타리오 의료 시스템 온타리오 의약품 급여와 트릴리엄 의약품 급여 혜택 무료 치과 진료 정보 정부지원 보조장비 프로그램 <p>*사전등록 필수</p>	<p>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월 22, 29일, 2월 5, 12일 (화) 총 4회기 오전10시 - 오후12시 ■ 장소: KCWA 노스옥 ■ 담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오선성희 ■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성격유형을 통한 대인 관계 소통의 기술 관계가 어려워질 때 힘든 마음의 상처 돌보기 불안하고 화나는 감정 돌보기 <p>*정원 20명 (사전등록 필수)</p>
<p>등록 및 문의: 416-340-1234 www.kcwa.net KCWA 다운타운: 27 Madison Ave, Toronto KCWA 노스옥: 540 Finch Ave, W, 2nd Fl, Toronto</p>		<p>토론토 총영사관 정착 서비스 일시: 1월 14일 (월) 오후1시30분 - 오후4시30분 장소: 토론토 총영사관</p>	<p>커뮤니티 자원봉사 일시: 1월 12일, 26일 (토) 오전10시 - 오후2시 장소: Good Shepherd Ministries</p>

OKBA 지구협 회장 전화번호

- 광역토론토 지구협회 -

- Etobicoke**
회장 이두승 (416) 895 - 1277
- New Market**
회장 금동진 (905) 836 - 6429
- North York**
회장 김정렬 (416) 665 - 6709
- Peel**
회장 이수봉 (905) 813 - 1333
- Richmond Hill**
회장 김대용 (905) 471 - 8079
- Scarborough**
회장 엄중호 (416) 759 - 4503
- Toronto East** GTA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김종범 (416) 363 - 9404
- Toronto West**
회장 김재숙 (416) 975 - 0365
- Weston & York**
회장 조용상 (416) 604 - 3116

- 남서부 지구협회 -

- Brant County**
회장 김종학 (519) 756 - 0099
- Halton & Hamilton**
회장 장은홍 (905) 679 - 4812
- London** 남서부 지구협의회 의장 겸임
회장 오세정 (519) 432 - 6672
- Niagara Falls**
회장 김흥기 (905) 354 - 1313
- Waterloo**
회장 최상경 (519) 579 - 8130
- Windsor**
회장 윤문성 (519) 326 - 1832

- 동북부 지구협회 -

- Durham**
회장 이현식 (905) 579 - 2500
- Huronia**
회장 진재원 (705) 487 - 2005
- Kingston**
회장 이강정 (613) 967 - 9998
- Owen Sound**
회장 허창훈 (519) 323 - 4311
- Peterborough**
회장 홍성훈 (705) 652 - 6323

www.okba.net

온라인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OKBA 온라인 회원사업연합회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공지사항 | 실행뉴스 | 게시판 | 실행뉴스PDF 보기 | KBA협동조합 특별세 | KBA협동조합 공동구매

OKBA와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OPEN

동봉기 검색창에서 'OKBA'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하세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Weston Bakeries 배달서비스 | Merchant Services Preferred Pricing Program | OKBA PROGRAM STORE | Moneris | SOS SAVE OUR STORES

지역	이름	연락처
Weston Bakeries	배달서비스	416-895-1277
Merchant Services	Preferred Pricing Program	416-895-1277
OKBA PROGRAM STORE	프로그램 스토어	416-895-1277
Moneris	결제시스템	416-895-1277
SOS SAVE OUR STORES	소상공인 지원	416-895-1277

175 THE WEST MALL, ETORICOKE Ontario M9C 1C2 | 대표전화 : (416) 789-7891 | 팩스번호 : (416) 789-7834

OKBA PROGRAM STORE

Strong Retailers' Network

- 독립편의점 네트워크 구성 중점
- 프로그램 스토어 전담팀 운영
- 가업 업소 직접 방문
- 문제점 및 업소운영에 대한 상담
- 각 업소에 맞는 운영안 제시
- POS 시스템의 운영으로 자료 축적을 통한 공급,유통 환경 개선





■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무실 ----- (416) 789-7544
 169 The West Mall, Etobicoke
 협동조합 웨스트몰지점 ----- (416) 867-1444
 169-175 The West Mall, Etobicoke

■ 담배회사 및 관련업체

Imperial Tobacco Canada ----- (800) 379-7629
 JTI MacDonald Corp ----- (800) 268-2068
 Rothmans Benson & Hedges ----- (800) 387-8555
 Kretek ----- (905) 625-1169
 House of Horvath Inc. ----- (416) 534-4254
 Scandinavian Tobacco ----- (866) 837-1807
 Casa Cubana ----- (514) 737-0066
 GVA Canada Inc ----- (416) 573-8085
 National Smokeless Tobacco Co. ----- (519) 208-5138
 Bic Inc ----- (416) 742-9173
 Nibo Group Inc. ----- (905) 479-0022

■ 복권관련

AGCO (복권 판매 라이선스 관련) ----- (416) 326-8700
 (800) 522-2876
 Fax (416) 326-5555
 OLG ----- (800) 387-0104

■ 음료

Coca Cola Bottling Company ----- (800) 241-2653
 Pepsi Bottling Corp. ----- (905) 568-7909
 (800) 387-8400
 Nestle Waters Canada ----- (519) 763-9462
 Lassonde ----- (905) 791-5300

■ 우유

SAPUTO(Neilson Dairy) ----- (800) 663-4724
 Parmalat ----- (905) 829-0555
 Sealtest / Natrel ----- (416) 442-2300

■ 스낵

Frito Lay Canada ----- (905) 460-2414
 Old Dutch Foods Ltd. ----- (800) 387-2273
 Krispy Kernels ----- (800) 461-7337
 South Cove ----- (905) 829-3666

■ Meat Jerky

Great Canadian Meat ----- (905) 666-9395
 Conagra ----- 1- (888) 639-7868

■ 초코렛 / 캔디

Nestle Chocolate ----- (800) 500-5634
 Mars Canada Inc ----- (800) 565-0147
 Hershey Canada Inc. ----- (800) 268-1304
 Mondelez(Cadbury/Christie) ----- (855) 535-5648
 Wrigley Canada ----- (416) 442-3298

■ 아이스크림

Nestle Ice Cream ----- (905) 458-3600
 Ontario (800) 500-5634
 Unilever Canada Inc ----- (866) 888-2775
 Fruti Distributing ----- (866) 663-3231

■ ATM / Debit

TD Merchant Services ----- (888) 663-6634
 Touch Cash ----- 1- (866) 391-3950
 Moneris Solutions ----- 1- (877) 789-5335
 1 Solution ----- 1- (888) 554-7355

■ 잡지

Metro News ----- (416) 285-2050
 News Group ----- (905) 681-1113

■ 법률관련

변호사 이영동 ----- (905) 272-4339
 변호사 박재현 ----- (905) 527-0202
 Best Defence (아담 유) ----- (416) 739-8887

■ 금융 / 회계 / 재정 / 보험

Bank of Canada(위조지폐 관련문의) ----- (888) 513-8212
 신한은행 ----- (416) 250-3550
 외환은행 ----- (416) 222-5200
 TD한인금융센터 ----- (416) 250-5855 (손종호 ex 231)
 이방록 회계사 ----- (416) 221-2009
 오중찬 보험 ----- (416) 602-7083
 최창근 모기지 ----- (647) 928-7313
 이은진 회계사 ----- (416) 802-3870

■ 언론사

한국일보 ----- (416) 787-1111
 중앙일보 ----- (416) 736-0736
 Globe and Mail ----- (800) 387-5400
 National Post ----- (416) 383-2500
 Toronto Star ----- (416) 367-4500
 Toronto Sun ----- (800) 668-0786

■ 장비 설치 수리

중합캐쉬레지스터 ----- (416) 622-2255
 프로캐쉬레지스터 ----- (416) 804-4075
 Cool Air Cleaning ----- (416) 224-0020
 Hi Cool Tech ----- (416) 909-7114

■ 기타

Kocom ----- (416) 769-3532
 DSC Digital System ----- 416) 255-6549
 Label & Bag Depot ----- (416) 432-2937
 Ubix Communications ----- (416) 492-6022 (Ex.221)
 David Health International ----- (647) 726-1010
 허바웰스 ----- (416) 435-5754
 365 Wholesale ----- (416) 931-9002
 Butterfly Fashion ----- (416) 785-5999
 The Best Inventory Service ----- (905) 359-8560
 원도매상 ----- (416) 661-6664
 DavidWholeSale ----- (416) 419-3751
 78 Trading ----- (437) 777-7878

달콤한 휴식

신제품

- 초콜릿 브랜드 1위
- KIT KAT, 해당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며 14% 성장*
- 3가지 맛 출시



자세한 내용은
도매업자에게
문의하세요!



버블에서 ...느껴지는... 마성의 맛

- 시장 진출 기회 증대
- 더욱 세련된 모양
- 속 안을 가득 메우는 트러플

*Nielsen TL KIT KIT L12W p/e 2015년 12월 12일
상표 소유 / PROPRIÉTAIRE DES MARQUES: SOCIÉTÉ DES PRODUITS NESTLÉ S.A., VEVEY, SWITZERLAND / SUISSE.
라이선스 소유자 / LICENCIÉ: NESTLÉ CANADA INC., NORTH YORK, ON M2N 6S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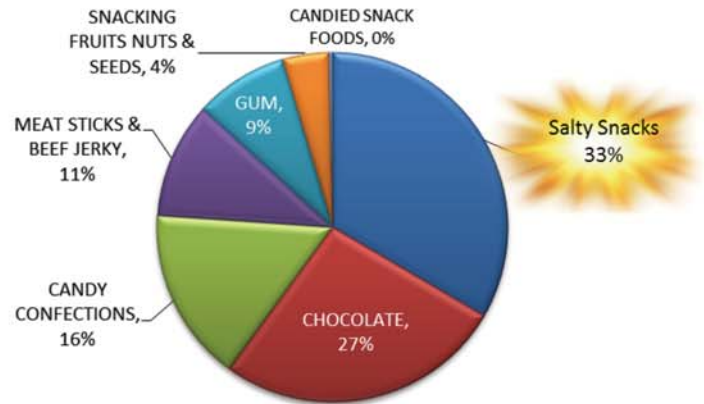
매출액 올리는 해결책은 Salty Snack Single Serve 총동구매 유도

왜 날개 봉지(Single Serve)에 집중해야 하는가?

Salty Snacks is the #1 Macro Snack

INCREMENTAL Trip	IMPULSE Purchase	IMMEDIATE Consumption
갑작스러운 허기 충족	즉흥적인 구매 결정	구매 즉시 소비되는 제품

2017 Total Category \$ Volume



Single Serve Growth Drivers

Talk to your Frito Lay Representative about a Display



✓ Leverage innovation to fuel trial and excitement



✓ 6ft from cash with a display or rack



✓ \$1.69 Everyday retail



Source: Single Serve Research (DIG, 2017)

Source: Nielsen National C&G, 52 Wks ending Dec 9, 2017